

2023년 4월 23일 “여호수아(2) 정탐 속에서 드러난 고백”(수 2:8-13)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까운 싯딤에서 정복의 첫 대상인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이 기사 속에서 만난 기생 라합은 하나님 구원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가나안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

라합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히브리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이적 행위였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도와주는 대신 자신과 식구들의 운명을 히브리인들에게 의탁합니다. 라합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 9 절. 하나님이 이 땅을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수십년 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창 15:13-21). 이 땅을 향해 코앞까지 온 그들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와 인간들에게 수준 높은 인간성을 요구했으며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셔서(창 15:16) 가나안 땅이 히브리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2) 10 절.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했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첫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2] 섭리의 축복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인격적으로 부르고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주권자 되심은 믿는 사람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은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의 귀한 신앙고백을 남겼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았으며, 4 대손 다윗을 낳습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스라엘 왕가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어머니들에겐 공통점이 보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침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 생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경험과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축복이 자식에게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엔 불평, 원망, 질투, 못마땅함, 씁쓸함, 답답함,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도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와 찬양과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새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라합의 고백에 힘입어 주님께 대한 풍성한 감동으로 채워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 자신과 식구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충만하여 찬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